

환영사



남성현
산림청장

산림을 사랑하시는 임업인, 국민 여러분께,
정확히 50년 전인 1973년, ‘국토녹화 10개년 계획’의 첫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목표 : 1982년까지 모든 국토를 녹화한다.

시점은 ‘1982년까지’, 대상은 ‘모든 국토’, 목표치는 ‘녹화완료’입니다.

이 거대한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거침이 없어서, 혹시나 목표완수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도망갈 구석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걸고 온몸을 내던진 1973년의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우리 국토는 오늘날 푸르고, 울창한, 아름다운 산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대한민국의 산림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으로 대표되는 산림재난입니다.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가꾼 산림을 경제적인 소득과 산업으로 연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한 평생 숲을 가꾼 임업인들은 국토녹화 50년을 맞은 시점이기에, 이제는 좀 더 가시적인 산출물이 있어야 한다, 라고 입을 모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나무와 숲, 정원과 수목원, 도시숲과 휴양림 등을 온 국민의 건강자산, 한 평생을 함께하는 벗이자, 쉼터로 제공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2023년 산림·임업 전망대회의 주제를, ‘국토녹화 50주년, 산림 100년 비전의 모색’으로 정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올 한 해 동안,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2050년을 넘어 2073년까지의 대한민국 산림의 비전, 전략과 해결과제들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장기 ‘미래 예측’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믿는 미래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자 담대한 ‘실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장대한 ‘산림·임업 전망’의 첫 걸음을, 오늘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산림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